

정 | 책 | 이 | 슈

동아시아 주요 도시 간 국제관광 경쟁력 비교

〈 목 차 〉

요약

1. 들어가는 말
2. 국제관광시장 현황
3. 도시 간 국제관광경쟁력 평가지표
4. 동아시아 주요 도시 간
국제관광경쟁력 평가결과
5. 결론 및 제언

금 기 용(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02-2149-1213

kykeum@sdi.re.kr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서울의 국제관광경쟁력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총 49개 계량평가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4개 대분류, 15개 중분류 지표로 나눈 다음, 동아시아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중심 도시인 서울, 베이징, 도쿄, 타이베이, 홍콩, 싱가포르 등 6개 도시들을 대상으로 2003년 기준 총 294개 도시별 평가 자료를 구해서 각 도시의 관광 부문 국제경쟁력 지수를 산출하였다.

평가결과 싱가폴이 관광경쟁력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도쿄, 베이징, 홍콩, 서울, 타이베이 순으로 관광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위를 차지한 싱가폴의 경우 국제화 지표에서, 근소한 차이로 2위를 한 도쿄는 관광인프라 지표에서 특히 강한 경쟁력을 보여 이 두 지표가 관광경쟁력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은 대부분의 평가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다른 비교 도시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의 경쟁력을 보였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관광인프라 지표와 국제화 지표에서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낮은 국제관광경쟁력 수준은 한편으로 지금까지 관광부문에 대한 투자와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로서 앞으로 어떻게 노력하는가에 따라 경쟁력 순위가 급상승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광 인프라 확충과 국제화 전략 측면에서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시가 2010년에 1200만명 관광수출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번에 평가된 분야들을 중심으로 단순한 방책(end-of-pipe)같은 일시성 이벤트나 행사 위주의 정책보다는 전략적이면서도 체계적인 관광정책이 필요하다. 그러한 대책들의 한 예로, 서울시 관광 전략거점인 4개 관광특구에 대해 관광마케팅 측면을 중심으로 활성화 대책을 세우고 도시계획 및 설계 등의 관련 부문에서 이를 지원하는 등 관광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는 말

- 도시마케팅의 목표 중 하나는 관광객 유치임. 어떻게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것인가? 에 대한 해답이 바로 관광경쟁력 확보 방안임. 높은 관광경쟁력을 가진 도시는 바로 관광객 유인 요인들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관광객들을 유인할 요인들로는 숙박,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살거리 등 욕구충족을 위한 각종 시설이나 서비스 등이 일차적으로 포함되나, 물가수준 등과 같은 경제적인 요인들뿐만 아니라 정책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국제화 요인들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서울시는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해외 다른 경쟁도시들도 마찬가지로 비교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항상 경쟁도시들의 동향을 주시하며 노력의 정도와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서울을 세계적인 관광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바꾸기 위한 전략 및 정책들을 모색하는 데 기초가 될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동아시아의 경제·정치적 중심도시인 서울, 홍콩, 베이징, 도쿄, 타이페이, 싱가포르의 도시별 계량자료(2003년 기준)를 수집·분석하여 이들 도시들의 관광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음.

2. 국제관광시장 현황

- 국제관광 시장은 전반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전세계 국제관광 입국자 수가 2억 3천 6백만 명에 달하였음¹⁾

1) World Tourism Organization(UNWTO), 2006, *World Tourism Highlights*.

- 2005년도 전세계의 국제관광 입국자 수는 전년 대비 4.5% 증가하였음. 아프리카와 중동은 11% 이상 증가하였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8%, 유럽과 미주 대륙은 3%정도 증가하였음.
- 2005년도에 세계에서 여행입국자가 가장 많았던 나라는 프랑스였으며, 이어 스페인, 미국, 이탈리아, 중국 순으로 이들 5개국이 관광대국 빅5를 형성하고 있음(<표 1> 참조).
- 한국은 2005년에 외래관광객 6백만 명을 돌파하며 2003년에 비해 26.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세계 순위가 상승되지는 못했음. 이는 동 기간에 다른 국가들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의미함.

<표 1> 주요 국가의 여행입국자 수

국가명	여행입국자수(천명)			
	2003년		2005년	
프랑스	1	75,048	1	76,001
스페인	2	51,830	2	55,577
미국	3	41,212	3	49,402
이탈리아	4	39,604	5	36,513
중국	5	32,970	4	46,809
영국	6	24,715	6	29,970
러시아	7	22,521	11	19,940
오스트리아	8	19,078	10	19,952
멕시코	9	18,665	7	21,915
독일	10	18,399	8	21,500
홍콩	12	15,537	17	14,773
싱가폴	30	5,705	30	7,080
일본	32	5,212	33	6,728
한국	35	4,754	36	6,022
타이완		2,950	48	3,378

자료: UNWTO, 2006, World Tourism Highlights.

- 2000~2005년 동안 대륙별 외래관광객은 절대량이 적은 중동지역을 제외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이 4천 5백만 명이 증가된 40.7%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표 2> 참조).

<표 2> 대륙별 여행입국자 수

대륙별	2000년 (천명)	2005년 (천명)	증가수 (천명)	증가율(%)
아프리카	28,284	37,312	9,028	31.9
아메리카	128,164	133,612	5,448	4.3
아시아·태평양	111,372	156,724	45,352	40.7
유럽	395,894	441,528	45,634	11.5
중 동	24,183	39,023	14,840	61.4

자료: UNWTO, 2006, *World Tourism Highlights*.

○ 동아시아 및 한국의 국제관광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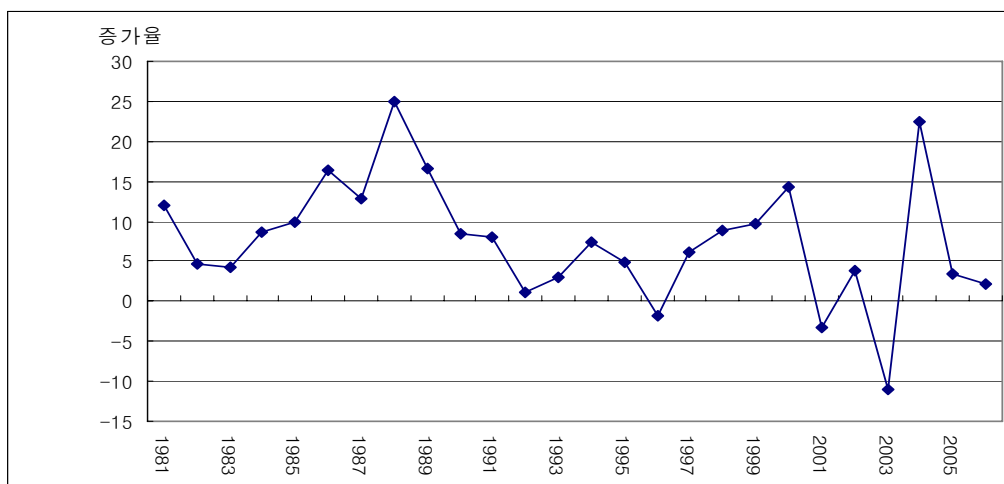
- 한국은 2005년에 외래관광객 수가 2000년 대비 12.9% 증가하였으나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에 비해 증가율이 상당히 낮은 편임.
- 홍콩, 중국, 일본은 과거 5년 동안 외래관광객 증가율이 각각 67.6%, 50.1%, 41.4%로서 한국보다 두배 이상의 괄목할 만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표 3> 참조).

<표 3> 동아시아 주요 국가별 외래관광객 입국 추이

국가	2000년 (천명)	2005년 (천명)	증가수 (천명)	증가율(%)
중국	31,229	46,890	15,661	50.1
싱가포르	6,917	7,080	163	2.4
홍콩	8,814	14,773	5,959	67.6
일본	4,757	6,728	1,971	41.4
한국	5,332	6,022	690	12.9
대만	2,624	3,378	754	28.7

자료: UNWTO, 2006, *World Tourism Highlights*.

- 지난 27년 동안 한국의 외래관광객 증가율을 보면 서울올림픽이 개최된 1988년도에 전년대비 25%의 최고 증가율을 기록한 후 아직도 갱신하지 못하고 있음.
- 근래 들어 2004년에 외래관광객 수가 전년대비 22.4% 증가하였으나 이는 2003년 SARS의 영향으로 외래관광객 수가 급격히 감소한 데 따른 반등효과라 볼 수 있음.
- 2005년에는 6백만 관광객 유치목표를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겨우 2.2% 증가하는 데 그쳤음. 전반적으로 2000년 이후 '한류'의 붐 속에서 한국 방문 외래관광객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율은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주변 동아시아 국가들이 국제관광객 유치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고 성장률을 보이는 동안 한국의 외래관광객 증가율은 오히려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국의 국제관광경쟁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음.



[그림 1] 한국의 연도별 외래관광객 증가율

3. 도시간 국제관광경쟁력 평가지표

1) 평가지표 선정

- 대분류 평가지표: 관광인프라, 관광경제, 관광행정, 국제화·안전의 4개 분야
- 중/소분류 평가지표 (15개/49개)
 - 관광인프라 지표(7개/21개)²⁾: 숙박시설(5)³⁾, 회의/전시시설(2), 관람시설(2), 공원시설(2), 안내시설(1), 접근성(7), 쾌적성(2)
 - 관광경제 지표(3개/15개): 가격수준(8), 비즈니스 여건(2), 거시경제 여건(5)
 - 관광행정 지표(2개/2개): 행정조직(1), 예산효율성(1)
 - 국제화·안전 지표(3개/11개): 외교관계(3), 국제화 여건(6), 사회 안전도(2)

2) 평가항목 가중치 추정 및 평가지수 산정

- 국제관광경쟁력 평가지표들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 추정
 - 설문지는 관광인프라, 관광경제, 관광행정, 국제화·안전의 총 4대분류 지표, 15 중분류 지표, 그리고 72항목으로 구성함.
 - 분석 결과 현저하게 낮은 중요도를 나타난 10개 항목과, 각 도시별 데이터 수집 시 일부 도시에서 자료수집이 불가능한 13개 항목을 삭제한 후 각 평가항목들의 중요도에 따라 상대적 가중치를 조정함.

2) ()안의 숫자 중 앞의 숫자는 중분류 평가지표 수이며, 뒤의 숫자는 소분류 평가지표 수임.

3) ()안의 숫자는 소분류 평가지표 수임.

- 최종적으로 4개 대분류 지표, 15개 중분류 지표에 해당하는 49개 평가항목을 평가지표로 선정함.

○ 평가지수 산정

- 각 분류별 가중치를 경쟁력 산출 모형에 투입하여 각 도시에 대한 종합 국제관광 경쟁력 지수를 산정함.
- 경쟁력 지수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먼저 각 기초평가항목별 값과 해당 가중치를 통해 기초평가항목별 경쟁력을 계산하고, 이 과정을 중분류와 대분류 평가항목에 대해 반복하여 각각의 경쟁력 지수를 산정한 후, 최종적으로 각 대분류별 경쟁력 지수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고 이를 합쳐서 종합경쟁력 지수를 도출하는 것임.
- 경쟁력 지수 산정식

$$C_j = \sum_{k=1}^4 W_{1k} M_{kj}$$

$$M_{kj} = \sum_{m=1}^{15} W_{2mk} S_{mkj}$$

$$S_{mj} = \sum_{i=1}^{49} W_{3mkj} X_{ij}$$

C_j = 도시 j 의 종합경쟁력

M_{kj} = 도시 j 의 15 중분류별 경쟁력

S_{mj} = 도시 j 의 49 기초항목 경쟁력

X_w = 도시 j 의 소분류 기초평가항목 i

W_{1k} = 4 대분류 항목별 가중치

W_{2mk} = 15 중분류 항목별 가중치

W_{3mkj} = 49 소분류 항목별 가중치

- 각 도시의 평가지표 지수값을 객관적인 수치로 비교하기 위해 표준화(normalized) 점수를 사용함.

4. 동아시아 주요 도시 간 국제관광경쟁력 평가결과

○ 관광인프라 경쟁력 순위

- 관광인프라 분야에선 도쿄가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서울은 5위를 차지함.
- 도쿄는 '중급관광호텔 수'와 '예술공연장 수', '관광안내소 수', '여객항만', '대기오염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남.
- 서울은 '특급관광호텔 수'와 '관광안내소 수'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도심·공항간 소요시간'의 항목에서 최하위를 차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타 도시에 비해 관광인프라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됨.

<표 4> 관광인프라 부문 경쟁력 순위

순위	국가	합계 점수
1	도쿄	0.5734
2	싱가포르	0.5587
3	베이징	0.4896
4	홍콩	0.4491
5	서울	0.3328
6	타이페이	0.2236

- 관광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한 중분류 지표들의 경쟁력 지수들을 살펴 보면, 싱가포르가 가장 많은 세 개 항목에서, 도쿄가 두 개 항목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함. 그럼에도 합계점수로 도쿄가 1위를 차지한 것은 도쿄가 전 분야에 서 골고루 상위에 올라 있는 데 기인함.

- 서울과 타이페이는 1위 항목이 하나도 없으며 대부분 항목들이 하위에 머물고 있음. 특히 서울은 숙박시설과 접근성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관광경제부문 경쟁력 순위

- 가격경쟁력 비중이 큰 관광경제 지표에서는 베이징이 1위였으며 타이페이와 서울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2, 3위를 차지함.
- 관광경제 지표에는 물가 관련 항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물가가 싼 베이징과 타이페이가 상위를 차지함.
- 서울은 관광경제 부문에서 관광인프라 부문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 이는 물가지표를 제외한 다른 항목에서는 비교적 좋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임.

<표 5> 관광경제 부문 경쟁력 순위

순위	국가	합계 점수
1	베이징	0.2782
2	타이페이	0.2171
3	서울	0.2119
4	도쿄	0.2045
5	홍콩	0.1906
6	싱가포르	0.1845

- 관광경제 지표 중분류별 경쟁력 순위를 보면, 베이징은 '가격수준'과 '비즈니스 여건' 두 분야에서 1위로 나타남.
- 서울은 '거시경제 여건'에서 도쿄에 이은 2위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물가를 나타내는 가격수준에서 5위를 차지하여 가격경쟁력이 취약함을 보여줌.

○ 관광행정부문 경쟁력 순위

- 관광행정 지표 분야에서는 타이페이가 1위를, 서울이 2위를 차지하였음.

<표 6> 관광행정 부문 경쟁력 순위

순위	국가	합계 점수
1	타이페이	0.0414
2	서울	0.0349
3	베이징	0.0324
4	도쿄	0.0304
5	싱가포르	0.0249
6	홍콩	0.0179

- 주목할 점은 관광행정 지표 순위가 대부분 다른 지표들 순위와는 거의 상반되게 나왔다는 점임. 이는 대체로 관광부서가 도시마다 거의 비슷한 위상을 가지고 있어, 외래관광객 지출을 시의 총예산으로 나눈 시예산의 수출효과 변수가 관광행정 지표 순위를 거의 결정하기 때문임.
- 특히 타이페이와 베이징의 경우 시예산 규모가 다른 도시에 비해 현저히 작은 점이 예산효율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데 기여함. 그러나 시정부 예산의 관광수출효과 변수가 예산효율성이라는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결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국제화·안전 부문 경쟁력 순위

- 외교 및 국제화 여건이 가장 앞선 싱가포르와 홍콩이 다른 도시들에 비해 월등한 점수를 얻어 1위와 2위를 차지함.
- 서울은 최하위 자리를 모면했지만 베이징보다도 뒤진 5위의 낮은 경쟁력을 보임.

<표 7> 국제화 · 안전 부문 경쟁력 순위

순위	국가	합계 점수
1	싱가포르	0.2391
2	홍콩	0.2258
3	도쿄	0.1712
4	베이징	0.1428
5	서울	0.1401
6	타이페이	0.0928

- 싱가폴은 외교관계 및 국제화 여건에서 다른 도시에 비해 월등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사회안전도에서의 낮은 점수를 상쇄하고 국제화 · 안전 지표에서 1위를 차지함.
- 반면, 서울은 외국인유학생, 외국인체류자수, 외국인 방문자수, 국제회의 개최건수, 외국어능력 등으로 측정한 국제화 여건에서 저조한 성적을 보여 국제화 · 안전 지표에서 5위에 그침.

○ 도시별 관광경쟁력 종합 순위

- 종합 관광경쟁력 순위에서 싱가폴이 1위를 차지하였고, 이어 도쿄, 베이징, 홍콩, 서울, 타이페이 순으로 종합순위가 나타남.
- 1위에서 4위까지 도시들은 근소한 점수차이를 보이면서 경쟁력점수 상위권을 형성하였으나, 5위 서울은 4위 홍콩과 현저한 점수차이가 있음에 주목해야 함.
- 서울의 관광경쟁력은 1위 싱가폴 관광경쟁력의 약 7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종합 순위 5위를 한 서울의 관광경쟁력은 타이페이를 제외하면 여타 비교 도시들보다 많은 점수 차이로 낮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됨.

<표 8> 관광경쟁력 종합 순위

순위	국가	종합 관광경쟁력 지수
1	싱가포르	1.0108
2	도쿄	0.9757
3	베이징	0.9562
4	홍콩	0.9115
5	서울	0.7103
6	타이페이	0.5546

5. 결론 및 제언

○ 동아시아 주요 도시 간 국제관광경쟁력 비교 결과

- 싱가포르가 관광경쟁력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도쿄, 베이징, 홍콩, 서울, 타이페이 순으로 경쟁력이 높았음.
- 최상위 싱가포르의 경우 국제화 지표에서, 도쿄는 관광인프라 지표에서 특히 강한 경쟁력을 보임. 따라서 '국제화' 지표와 '관광인프라' 지표가 관광경쟁력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남.

○ 서울의 국제관광경쟁력 수준

- 서울은 다른 도시에 비해 특별히 강한 경쟁력을 보인 분야 없이 대체로 모든 평가 분야에서 낮은 수준의 경쟁력을 보임.
- 서울은 특히 관광인프라 지표, 국제화 지표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또 다른 중요한 경쟁력 지표인 관광경제 지표의 물가지표에서도 서울은 도쿄 다음으로 물가가 비싼 도시로 낮은 경쟁력을 보임.
 - 이는 그동안 서울이 국제적인 관광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나 노력을 소홀히 하였다는 것을 의미함.
- 서울의 국제관광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관광대책 마련이 필요함.
- 이번에 분석된 대부분의 평가지표 점수를 보면 대체로 관광경쟁력을 위한 도시 인프라 측면과 전략적인 측면에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어, 부문별 단순 개선책이 아닌 종합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서울시가 2010년에 1200만 외래관광객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번에 평가된 분야들을 중심으로 단순한 방책(end-of-pipe) 같은 일시성 이벤트나 행사 위주의 정책보다는 전략적이면서도 체계적인 관광정책 추진에 중점을 두어야 함.
 - 한 예로, 이같은 전략적, 체계적인 정책은 서울시의 관광거점인 4개 관광특구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에 필요함. 즉, 관광마케팅 측면에서의 분석을 통해 각 관광특구에 맞는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고 이를 도시설계 측면에서 기능적, 심미적으로 구현하는 등 분야별 체계적인 역할분담이 중요함. 이는 도시계획 측면이 우선되어 관광특구 활성화나 관광마케팅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의미함.